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반 보육교사의 어려움

박소윤* 서현아**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During the Process of Early Adaptation in Day Care Center

Park, So Yun Seo, Hyun Ah

본 연구는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에서 영아반 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생각과 요구를 실제적으로 파악하며 바람직한 초기적응 운영방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에 위치한 국공립 S어린이집의 만 1세반 영아 9명과 부모 7명을 관찰하였으며, S어린이집 교사 8명을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만을 위한 이기주의, 상호간의 신뢰 부족,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학부모 역할 이해 부족,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영아와의 관계에서는 우는 아이 달래기, 또래들 간의 다툼 중재하기,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간의 균형 맞추기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동료교사와 협력하기, 원장선생님과 대화하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겪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영아보육교사, 어린이집, 초기 적응, 교사의 어려움

* 제1저자 : 동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parksoyun1230@hanmail.net)

** 교신저자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shyna07@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가정의 육아지원과 보육사업의 체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2년 3월 이후 0세-만2세, 만5세 무상보육이 처음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의 0-만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이 전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3)에 의하면 2000년 686,000명이었던 보육 아동이 2013년에는 1,486,980명으로 21% 증가하였다.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이 2005년 20.6%에서 2008년 37.7%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3.4%를 차지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의 숫자가 증가하고 연령도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아들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주 양육자와 떨어져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며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의 중요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전현주, 권경숙, 2012).

적응이란 영유아가 단체 생활이 요구하는 규칙을 인식하여 따르고 자신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키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뜻한다(박영아, 엄서영, 2012).

특히 영아기는 발달 특성상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김영옥, 2003), 어린이집 입학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부모와의 격리 그리고 물리적 환경, 또래, 학급의 교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루 일과, 규칙같이 보이지 않는 요소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일 수 있다. 또한 영아는 자신이 머무르게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부모와 격리를 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진 채 낯선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김희진, 김영애, 2008, 신현정, 2003). 그러므로 영아가 처음으로 부모와 헤어지는 경험을 잘 받아들이고 보육교사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으며 보육환경과 하루 일과에 대해 편안함을 느껴 어린이집을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는 초기적응과정이 어느 연령에서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은경, 2010).

영유아들의 초기 기관적응은 이후의 학교적응, 또래관계, 학습준비도 등 전반적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며(Entwisle & Alexander, 1993; Ladd & Price, 1987), 향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적응과 학문적 사회적 성취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Dockett & Perry, 2003). 영유아의 성공적인 초기 적응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만족감,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서소정, 하지영, 2008; 송진숙, 2004; 송진숙, 권희경, 2003; 안선희, 2002; 이영숙, 서소정, 2006).

반면 영유아의 초기 부적응은 학교 적응 및 학습 준비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Dockett & Perry, 2003), 과잉행동,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기도(서소정, 하지영, 2008;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 2002) 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초기적응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지표로서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희선, 이은하, 박희경, 2013). 영아의 성공적인 기관적응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교사는 영아들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안정 기제를 제공하는 존재이다(Fabianm 2000). 교사의 태도와 행동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현온강, 태진, 2000; NICHD, 2001; 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학기 초에 형성된 교

사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유아는 초기 적응을 잘 하는 반면, 교사와 갈등이 있거나 의존성이 높은 유아는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안선희, 2002; Birch & Ladd, 1997), 교사는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며(김영옥, 2003) 적극적인 지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구수연, 2004).

영유아의 초기적응 과정은 영아-부모 간의 분리로 인해 영아, 부모, 교사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삼각형 상호작용 관계이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영아와 부모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어려움이 따른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공적인 초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 주체자로서 실제 초기 적응과정에서 교사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윤숙, 조희숙, 2011).

그간 어린이집 초기적응연구는 대부분 영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연구(김소희, 2006; 김해숙, 2011, 김희진, 김영애 2008; 박민혜, 2007, 박미자, 2009; 신현정, 200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교사의 지도 방법, 영아프로그램 연구(김은경, 2010; 구수연, 2005; 소재진, 2007; 신희남, 2011), 교사와 유아의 관계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신유림, 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유혜선, 2014; 이진숙, 2004) 등의 연구들로 초기적응을 진행하는 교사의 어려움은(김윤숙, 조희숙, 2011; 안지혜, 2014)로 극히 제한적이다. 김윤숙과 조희숙(2011)은 교사의 어려움을 교사와 영아,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며, 안지혜(2014)는 참여관찰이 아닌 심층면담법을 사용하여 주로 교사와 영아와의 관계에 한정된 결과를 도출하여 초기적응과정에서 겪는 영아반 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적응 기간에 겪는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지,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초기 적응기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초기적응지도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의 생각과 요구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과 지원방안을 찾아 바람직한 초기적응 운영방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1. 어린이집 초기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현장

본 연구는 P시에 위치한 국공립 S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다. S어린이집은 1996년 7월에 개원하여 2005년 시범평가인증을 통과하고, 2011년과 2014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으로부터 평가 재인증을 받은 시설이다. 0세반 1학급, 만1세반 1학급, 만2세반 2학급, 만3세반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 55명이 재원하고 있다. 교직원은 원장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사 1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S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초기적응을 위해서 2014년 2월 15일(토)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원의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급식 관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리엔테이션 후 영유아와 학부모들은 자신의 학급에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공지사항을 들었다. 영유아들은 새로운 교실을 탐색하고 가볍게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적응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최대 4주차에서 최소 1주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0-만1세 신입원아는 최소 2주차까지, 만2-만3세 신입원아는 최소 1주차까지 양육자가 교실에 아이와 함께 상주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재원 원아는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새로운 교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었다. 실시되고 있는 S어린이집의 3주간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내용

일과	연령별 적응 기간 및 시간				일과 활동내용
	0세	1세	2세	3세	
간식, 오전 놀이	3.3-3.7 (09:00-11:00)	3.3-3.7 (09:00-11:00)	3.3-3.7 (09:00-12:30)	3.3-3.7 (09:00-12:30)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양육자와 함께 방문하여 놀이한다. 오전 간식을 먹고 귀가한다.
점심	3.10-3.14 (09:00-12:30)	3.10-3.14 (09:00-12:30)	0)	0)	양육자와 함께 방문하여 오전 놀이를 한 후 12시 경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한다.
낮잠	3.17-3.21 (09:00-15:00)	3.17-3.21 (09:00-15:00)	3.10-3.14 (09:00-16:30)	3.10-3.14 (09:00-16:30)	등원 후 양육자와 작별인사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시도를 해본다.
종일	3.24-3.28 (09:00-16:30)	3.24-3.28 (09:00-16:30)	0)	0)	등원 후 양육자와 작별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혼자 지낸다.

2. 연구 참여자

1) 교사

본 연구는 S어린이집의 만1세 학급 교사를 현장관찰 하였으며, 0세 1학급, 만1세 1학급, 만2세 2학급, 만3세 1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담임교사는 모두 여성이며, 각 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의 유아 현황과 교사의 특징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교사의 구성 및 특성

교사	나이	담임학급	경력	학력	결혼유무
A	45	0세(3명)	2년	2년제 졸	유
B	42	만1세(9명)	11년	2년제 졸	유

C	24	만1세(9명)	초임	4년제 졸	무
D	30	만2세A(14명)	6년	대학원 재학	유
E	24	만2세A(14명)	1년	3년제 졸	무
F	43	만2세B(14명)	17년	대학원 졸	유
G	28	만2세B(14명)	5년	대학원 재학	무
H	26	만3세(15명)	2년	4년제 졸	무

연구자가 관찰한 만1세 반은 재원 영아3명과 신입 영아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적응 기간 동안 함께 온 양육자의 구성 및 특성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입하였으며 소현이와 세현이는 쌍둥이로 소현이가 6개월 먼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세현이가 신학기에 입소하였다.

<표 3> 만1세 반 영아와 부모

영아	성별	월령	출생순위	적응 기간에 함께 온 양육자	어머니 취업 유무	입소 시기
세아	여	24개월	외동	무	유	재원
소현	여	23개월	쌍둥이	어머니	무	재원
세현	남	23개월	쌍둥이	할머니	무	신입
보경	여	22개월	둘째	무	무	재원
수민	여	18개월	둘째	어머니	무	신입
성문	남	18개월	둘째	할머니	유	신입
현영	남	17개월	외동	어머니	무	신입
진건	남	17개월	셋째	할머니	유	신입
현경	여	17개월	둘째	할머니	유	신입

3. 자료 수집

1) 현장관찰

연구자는 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사의 동의를 얻은 후 2014년 2월 15일에 실시한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체 학급 학부모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한 후, 현장관찰을 실시하는 만1세 튼튼반 학부모 9명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4주 동안 매일 총 20회 동안 이루어졌다. 현장관찰 학급은 전체 인원 9명 중 신입원아가 6명인 만 1세반으로 1주차에는 등원부터 오전 놀이 활동 시간까지 2시간, 2주차는 등원부터 점심시간까지 3시간 30분씩, 3·4주차는 낮잠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등원부터 귀가까지 5시간 30분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하여 20일 동

안 총 72시간 관찰하여 현장노트를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초기적응과정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교사의 언어, 행동, 표정, 몸짓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현장노트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쟁점에 따라 재조직되었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초기 적응과정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전체 학급 교사 8명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담은 교사 8명 각각이 연구자 1인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들이 어느 정도 영아를 적응 시킨 후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3회기 진행되었다. 면담은 교사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하원시간 후에 어린이집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회당 최소 30분 최대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모든 이야기를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였으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e-mail을 통한 서신면담을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상황적 맥락을 압축된 설명(Spradley, 1988)으로 기록하였다. 면담은 Fetterman(1989)이 제시한 인터뷰 절차를 응용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탐색되어질 일련의 질문들 혹은 쟁점들에 의해 이끌어지지만, 정확한 질문의 순서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다. 초기에는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답변의 내용에 따라 추가질문을 하였으며, 초기 적응 과정에 대한 견해, 교사로서의 어려움, 영아반 교사로서 반성, 초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연구자가 관찰했던 특정 상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교사들의 면담내용은 전체 교사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현장노트, 심층 면담, 문서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현장노트를 서술적 관찰 일지로 재조직화하여 A4용지 48매 분량으로 해석 작업의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교사 8명의 면담 내용은 약기와 녹음과정을 거쳐 A4용지 288매 분량으로 전사하였다. 자료수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영아반 하루 일과 운영표, 어린이집의 초기적응 프로그램 계획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현장노트와 심층면담의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의 내용 중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하위 단위로 하는 영역을 찾았다(Spradley, 1980). 교사 심층면담의 내용과 현장노트는 연구 참여자의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알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전사본을 읽어보도록 하는 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기 적응 기간 동안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크게 교사-부모와의 관계, 교사-영아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쟁점화 할 수 있었다. 3가지 범주에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를 추출하였고, 각 대표 사례를 기술하였다. 범주화 과정의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범주화 과정

1차 범주화	2차 범주화	3차 범주화
1. 부모와의 관계 - 이기주의 - 신뢰부족 - 부모역할이해 부족 - 일과 운영이해 부족 - 같은 교실에 있는 부담감 2. 영아와의 관계 - 우는 아이 달래기 - 다툼 중재하기 - 재원영아와 신입영아 균형 맞추기 - 교사 독점하기 - 과중한 업무로 인한 체력 소모 3. 동료와의 관계 - 동료교사와 협력하기 - 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 - 업무 분담하기	1. 부모와의 관계 - 이기주의 - 신뢰부족 - 부모역할이해 부족 - 일과 운영이해 부족 2. 영아와의 관계 - 우는 아이 달래기 - 다툼 중재하기 - 재원영아와 신입영아 균형 맞추기 - 재원영아 소외감 3. 동료와의 관계 - 동료교사와 협력하기 - 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 - 업무 분담하기	1. 부모와의 관계 - 이기주의 - 신뢰부족 - 부모역할이해 부족 - 일과 운영이해 부족 2. 영아와의 관계 - 우는 아이 달래기 - 다툼 중재하기 - 재원영아와 신입영아 균형 맞추기 3. 동료와의 관계 - 동료교사와 협력하기 - 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

Ⅲ. 연구결과

1. 교사-부모와의 관계

교사들은 자기 자녀만을 위하고 우선순위로 돌봐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 상호간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거리감, 적응 기간 동안 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의 초기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 등원시간과 일과 시간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내 자녀만을 위하는 이기주의

내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과 핵가족이라는 특성은 부모들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고 유아 교육기관과 교사에게 대신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된다(권미량, 최애경, 2005).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에게 일대일로 양육을 받던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가정에서와 같이 일대일 양육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를 요구하는 부모들이 관찰되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 아이만은 가정에서 내가 양육하는 것과 동일하게 상호작용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이기심이 있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충족하려는 보상심리는 내 아이 위주로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까다로운 태도로 나

타났다.

성문이 할머니: 성문이는 먹어왔던 것만 먹어. 성문이가 잘 먹는 두부, 계란위주로 식단을 넣어줄 수 있을까.

교사 : 할머니, 어린이집은 매월마다 영양을 고려해서 다양한 음식을 줘요. 성문이가 새로운 음식에 적응할 수 있게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현장관찰 2014.3.5)

성문이는 어머니가 시외로 출퇴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자녀로 주로 할머니가 양육을 도맡아 하였다. 할머니가 조리하게 쉽고 삼키기 부드러운 두부, 계란, 찢은 김치 위주의 한정된 식단을 제공하였다. 이 때문에 성문이는 어린이집의 간식, 점심이 나오면 음식의 냄새만 맡고 먹지 않거나 혀에 약간 대보고 음식을 거부할 때가 많았다. 이틀, 삼일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집에 가는 날도 있었다. 그러자 성문이 할머니께서 여기는 우유를 매일 주지 않는 건지, 다른 원에서는 우유를 매일 준다고 하시며 성문이는 밥을 못 먹으니 매일 우유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학기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우리 애 위주로 우리 애는 계란만 먹기 때문에 이 식단을 넣어 달라고 하시구요, 우리 애는 혼자 못 먹으니 떠먹여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때 짜 되면 흘리더라도 혼자 먹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손가락 들고 혼자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이 옆에서 계속 떠먹여주길 원하고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길 원하세요. 한아이만 봤을 때는 가능하지만 단체생활에서 어느 정도 선은 집에서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하던 것 그대로 고수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F 교사, 심층면담, 2014.4.21)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그런지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저희한테 요구하세요. ‘기저귀 떼게 해주세요’, ‘앉아서 밥 먹게 해주세요’, ‘양치질 습관 들게 해주세요.’

(G교사, 심층면담, 2014.4.21)

아이들 울고 진짜 바쁜 시간에 어머니는 지금 급하다고 자기 아이 상담을 위해서 교사를 거의 전담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머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도 계속 얘기를 끊지 않고 하세요.

(D교사, 심층면담, 2014.4.25)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에 처음 보내는 부모님들은 많은 부분에서 걱정과 염려를 보였고 교사는 이러한 개별 부모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일일이 맞춰주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전체를 보기보다 자기 자녀에게 맞춰서 일정을 고려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초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영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영아 간 마찰이나 다툼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민이 : (조작영역에서 벽돌 블록을 한 개 씩 쌓는다).

현영이 : (수민이를 쫓아와 벽돌 블록을 쌓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수민이 : (살며시 자리를 옮겨 벽에 붙어있는 그림판 앞으로 가서 크레파스로 끼적인다).

현영이 : (수민이 쪽으로 다가와서 수민이를 껴안는다).
 수민이 : 으앙~ 으아앙(큰소리로 운다).
 현영이 : (수민이를 더 세게 끌어안아서 둘이 함께 바닥에 넘어진다).
 수민엄마 : 아이고
 현영엄마 : 하하하
 교사 : 현영 어머니 수민이가 싫어하네요. 다른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제지해 주세요.

(현장관찰 2014.3.7)

현영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주로 장난감을 빼앗거나, 다른 영아의 옷을 잡아당기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들은 울음을 터트리거나 도로 빼앗아 왔고, 현영이는 빼앗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할 줄 몰라 놔두고 또 다른 장난감을 빼앗는 일이 반복되었다. 영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소유욕의 특징이 두드러져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등의 갈등상황(안지혜, 2014)이 종종 발생하는데, 현영이 어머니는 영아들이 문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처나 피해에 대해 자신의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에 교사는 난처해하고 있었다.

2) 상호간의 신뢰부족

부모님들은 처음 보는 교사에게 신뢰감을 가지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복도에서나 창문 밖에서 많이 지켜들 보시거든요. 지켜 볼 때는 상황이 바로 옆이 아니니까 오히려 교실 안에 있을 때는 기승전결을 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걸 전혀 모를 때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언제 어느 때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몰래몰래 보고 가는 경우가 있을 때 교사로서 그렇게 신뢰감을 못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속상하죠.

(H교사, 심층면담, 2014.4.21)

신입 원아들은 태어나서 처음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만1-2세 때는 발달적으로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착 대상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장영희, 2003) 분리 개별화 하는데 있어 보육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김유진, 2003; 이진희, 임진형, 2004). 연구자가 관찰한 부모들도 영아들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거나, 교실을 나가더라도 영아들이 들여다 보이는 창문에서 서성여 오히려 영아들을 불안하게 해 적응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아이는 원에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자꾸 원에 머무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리를 할 때 한꺼번에 어머니들이 다 나가면 울음바다 되잖아요. 저희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2명씩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아이랑 못 떨어지는 거죠. 아이가 심하게 우니까 더 그렇고. 보셔서 아시잖아요. 안녕 인사하고 나가서 문 바로 옆에 창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애는 더 크게 우는 거죠.

(C교사, 심층면담, 2014.4.21)

지금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 드려도 우리아이가 힘들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낮잠 자는 거 못할 텐데, 혼자 화장실 가는 거 못할 텐데 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갈등하시는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나름대로 과정을 잘 밟고 있는데 저희 말을 믿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D교사, 심층면담, 2014.4.25)

학기 초 교사들은 부모님에게 기본적으로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특성은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환경이 되며(Lally et al., 1995), 부모와 교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원이 된다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입학시킨 부모는 교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여(안선희, 2002) 서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를 맡겨도 믿을만한 선생님이라는 신뢰를 쌓기 위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발문, 수업 준비까지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부모님의 신임을 얻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렇듯 상호간의 신뢰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모님의 행동은 고스란히 교사의 어려움으로 전달되었다.

3)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부모 역할 이해 부족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입학 후 영유아가 교육기관의 교실환경, 교사, 또래 및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점진적으로 단계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신현정, 2003).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부모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일부 부모님들은 적응기간 동안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런 교구도 있네.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까’, ‘저기 새로운 친구가 있네’와 같은 방법으로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아이는 눈으로 보고 같은 반 학부모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우리 아이 적응하러 왔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놀아주고 이 아이가 친구들과하고 놀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는 내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왔을 때 그건 전혀 적응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적응 시기에 어머니가 한 공간에 있다 뿐이지 적응을 하려면 이 아이가 친구들과하고도 친해져야하고 교구에도 익숙해 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놀아주셔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심하게는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사적인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죠.

(F 교사, 심층면담, 2014.4.21)

올해는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반 할머니들은 아이가 놀이하는걸 보시기만 했어요. 어떻게 아이와 놀아야 되는지 노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다치면 그때 중재를 해주시는 것 외에는 가서 이렇게 놀자 하는 상호작용은 덜했어요. 제가 놀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학부모들끼리 모여 서로서로 이야기하시고 우리 애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G교사, 심층면담, 2014.4.21)

아이와 상호작용하라고 그것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왔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어머니는 방관하시고 애는 낯서니까 뭐를 해야 할지 모르고.... 엄마가 있어서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지금 교사한테 애착형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옆에서 해 주려고 다가가도 애들이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머

니가 충분히 상호작용해주셔서 안정되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없는 거. 그래서 적응이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B교사, 심층면담, 2014.4.25)

교사들은 초기적응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초기적응기간 동안 보호자는 영아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영아가 놀이에 익숙해지고 교사와 충분히 접촉 하여 관계를 형성(우현경, 홍용희, 1998)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아가 교사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면 부모님은 자신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교사에게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전기지’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적응 기간이나 자유 놀이에서 부모의 역할을 설명해 주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었다.

4)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영아의 초기 적응을 위한 부모참여도는 매우 중요하며, 원의 적응프로그램을 충분히 인지하여 영아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원하는 부분을 교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원과 교사의 지도에 신뢰를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임명희, 강성희, 2007).

S어린이집은 신입원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일과 운영의 기본 방향과 연령별 일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성문이 할머니는 9시 등원을 지키지 않고 개인 생활패턴 위주로 편한 시간에 등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들쭉날쭉한 등원시간은 성문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성문 : (10시에 등원하여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찡그리고 할머니께 안긴다).

성문 할머니 : 아이고.. 성문이가 어린이집에 가자고 하면 울고불고 떼쓰는게 더 심해져요.

(현장관찰 2014.3.10)

아직까지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발달이나 원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자기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활패턴 위주로 생각하시고 원의 일과가 운영되는 수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편하신 시간에 보내시면 아이가 적응하는 게 좀 더 늦고 그러다보면 아이는 집에서 이렇게 놀아도 되는데 왜 굳이 어린이집에 가야돼?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울고불고 떼쓰는 것이 심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할머니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안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아이는 빨리 적응하기 어렵죠.

(B교사, 심층면담, 2014.4.21)

적응 기간 동안 보호자의 또 다른 행동은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다(우현경, 홍용희, 2012). 보호자는 함께 등원하여 일과 시간을 경험하고 이후 적응 기간의 생활을 예견하고 어린이집 내의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모님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하루 일과를 노는 시간과 수업시간으로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선택은 애들하고 놀이해주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모든 교육은 놀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부모님은 놀이는 그냥 놀이인거예요. 딱 앉아서 모임시간만 수업인 줄 알아서 그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아침에 9시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모임시간 맞춰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을 다 교육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아 교사가 애들하고 놀고 있네. 교육은 언제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갑갑하죠.

(F교사, 심층면담, 2014.4.25)

엄마들은 교육기관이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애들은 영아고, 적응하는 거랑 엄마랑 떨어지는 것 만해도 애들한테는 큰일인데 엄마들은 여기 오면 수업을 해야 되고 바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시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이 공간에 익숙해 지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적응자체가 가장 큰 교육인데 지금은 선생님하고 신뢰를 쌓아서 편안하게 느껴야지 그 다음에 교육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엄마들은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지금 왜 수업안 하지?” 하세요.

(D교사, 심층면담, 2014.4.25)

아이는 놀면서 배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교사와 유아가 마주 앉아 대집단 활동을 하는 것만이 배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교사는 이 점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초기적응기간 동안 개별 부모에 맞는 지속적인 부모교육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2. 교사 -영아와의 관계

교사들은 적응 기간 동안 양육자와 분리하기 힘들어 하는 영아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영아의 특성상 잦은 다툼을 중재하는 것과 신입영아의 적응을 우선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재원영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재원 영아와 신입영아를 동시에 돌봐줄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1) 우는 아이 달래기

영아에게 있어 모든 심리적 정서의 안전지대는 보호자이다. 하지만 이런 보호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위태로움을 영아들은 울음과 저항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교사는 어깨를 감싸 안아 주거나 영아와 눈을 맞추기, 영아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관심거리 제공하기, 영아와 함께 놀아주면서 상호일체감 제공하기, 세밀한 관찰로 영아의 마음 읽어주기(박은미, 조복희, 2003) 전략을 사용하면서 영아들을 최대한 달래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복도에 있으면 전체 반 아이들이 한 두명씩 울고 있으니까 울음소리가 울려요. 돌림노래 같이. 결혼 전에는 울음소리 자체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애를 낳고 나서는 시각이나 모든 게 달라졌는데 엄마되고 나서 애울 때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고, 장난감으로 시선 집중시키고 하지만 바로 그치는 게 아니니까 힘들죠.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하니까.

(A교사, 심층면담, 2014.4.25)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계속 울잖아요. 아이가 적응하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있고, 3월 한달은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악을 쓰는 울음소리. 저도 마음이 안타깝죠.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너무 우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중략) 지호가 너무 울고 뺨대서 안아주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남자 아이들 힘 좋은 애들 몸부림치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아이들 적응할 때 아픈 것처럼 교사도 몸살을 한번 썩 다 해요. 평상시에는 표를 최대한 안내려고 하고 주말되면 집에서 앓아누워서 그렇지. (F교사, 심층면담, 2014.4.25)

애가 여러 명이 울면 애도 안아줘야 되고 재도 안아줘야 되는데 애들을 계속 안아주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되고... (C교사, 심층면담, 2014.4.25)

이처럼 울며 몸부림치는 영아를 끊임없이 안아주고 달래면서 교사들은 정신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다.

2) 또래들 간의 다툼 중재하기

영아기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과 자율성, 독립적 성향은 강해지는 반면 신체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놀이감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또래간의 다툼이(조혜진, 2007) 많이 발생한다. 영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주로 소리 지르고, 때리고, 울고, 미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나타낸다(강문희, 장연집, 문미옥, 최석란, 조은진, 2003). 튼튼반에서도 영아들끼리의 다툼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진건 : (고리에 걸어 밀고 갈 수 있는 자동차 여러 대를 색깔별로 가지고 와 다리를 벌려 안에 모아둔다).

현영 : (뛰어와서 진건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뺏는다).

진건 : 안돼 안돼 아아아악.(다리 사이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다리를 오므린다. 현영이가 양 손에 한 대씩 자동차를 빼앗아 달아나자 괴성을 지른다).

현영 : (진건이가 일어나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하자 못 가져가게 밀친다).

진건 : (현영이가 가진 자동차를 빼앗아 오고 잠시 뒤 현영이가 다시 뺏는 상황이 반복된다). (현장관찰 2014.3.12.)

연령도 어리고 만1세 집에서 혼자 많이 있다 보니까 놀이감 공유를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어야 되고. 다른 친구한테 관심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몰라서 가서 밀고 당기고 몸으로 표현하는 애가 있어서 그럴 때 마다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게 좀 신경 쓰이고. 가까이 오는 것을 오해해서 이 아이는 놀고 싶어서 온 것을 내 것을 뺏거나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과잉방어도 종종하니까.

(C교사, 심층면담, 2014.4.21)

현영이는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래를 괴롭히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자주 일어나 부모님들이 주시하고 있었다. 다툼이 일어날 때 마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규칙을 이야기 했지만 같은 행동은 계속 반복되었다. 특정 영아들이 반복적으로 갈등 상황을 보였으며 그로 인

해 다른 영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교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재원영아와 신입영아의 균형 맞추기

S어린이집은 0세 반을 제외하고 모든 학급에 재원영아와 신입영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재원영아들은 일과와 규칙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였고, 놀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과와 규칙을 따르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놀이하며, 신입원아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재원영아들의 놀이 행동은 신입 원아들이 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모방 행동의 모델링이 되기도 하여(우현경, 홍용희, 1998) 교사의 전체적인 학급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신입영아라는 낯선 또래의 등장은 재원영아들에게 교사의 관심을 나눠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퇴행하거나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교사들은 재원영아와 신입원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재원같은 경우는 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입애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퇴행하는 행동을 보여요. 떼쓰기, 울고, 스스로 장난감 정리도 하고 있었고 밥도 잘 먹고 있었는데 교사가 새로운 애들한테 도와주고 해주는 모습을 보고서 ‘아 나도 안하고 있어야 겠구나’ 그럼 선생님이 더 관심을 주니까. 재원애들이 퇴행하는 모습 보이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B교사, 심층면담, 2014.4.28)

정신은 재원아이들보다 신규아이들 쪽으로 많이 가있어요. 엄마랑 같이 교실에 있다고 해도 그 아이 성향을 빨리 파악해야지 엄마랑 헤어졌을 때 적응시킬 수 있으니까. 재원애들은 당연히 잘 노는 거고, 신입 원아들은 엄마 없다고 우니까 더 많이 안아 주게 되죠. 재원 애들이 그 모습 보고 샘을 내서 네 명까지 한꺼번에 안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의를 신입 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되죠.

(C교사, 심층면담, 2014.4.28.)

신입인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신입과 재원이 섞임으로 해서 재원아이들은 잘 적응된 상태인데 신입 애들이 와서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재원은 새로운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 애기 누구지?’ 약간 경계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면서 잘 지내는 아이도 울기도하고. 차라리 다 신입이면 하루 일과 진행 하는 부분에서도 교사가 컨트롤하기 편한데 재원은 적응을 했기 때문에 교사가 등한시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조금 덜 가니까 아이들이 말은 안하지만 다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D교사, 심층면담, 2014.4.28)

재원영아들은 신입영아는 부모님과 함께하지만, 본인들은 부모님이 없다는 상황에 소외감을 표출하였고 낯가림이 있는 아이는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튼튼반의 재원영아인 세아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3월 첫 주는 신입영아 부모님을 보고 울먹이고 교사에게 가서 안기거나, 부모님 사진이 붙어있는 영역으로 가서 자신의 가족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교사들은 재원영아들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해결하려고 이야기 나누기, 안아주기, 일찍 귀가하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영아들의 마음을 온전히 달래주는 것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재원생들이 조금 슬펐잖아요. 재원아이들은 엄마가 안 오는데 신규아이들은 다 엄마랑 같이 있

으니까 잘 하던 아이들도 엄마를 그리워한다거나 아침에 올 때 힘들어 하고 “엄마도 같이 가자.” “엄마 가지 마” “나랑 같이 놀다가 가” 하면서 등원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는 했는데... (D교사, 심층면담, 2014.4.28)

몇몇 여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엄마가 없어 나도 엄마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없으니까 심심해” 자기도 엄마랑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중략) 엄마 없어서 계속 기분 안 좋은 아이들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평상시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데려가 시라고 했어요. 더 많이 안아주고, 관심 가져줘야 하는데 힘에 부치니까... (H교사, 심층면담, 2014.4.28)

초기 적응기간 동안 재원영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과 규칙들을 신입영아는 새롭게 숙지하고 익혀야 하므로 재원영아들은 들었던 말들을 또 다시 듣고 반복해야 하는 점이 관찰되었다. 교사는 이러한 재원영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재원영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별적인 지원을 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교사들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는 신입영아들을 다 독여야 한다는 생각과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재원영아들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3. 동료들과의 관계

교사들은 새로운 학급에서 새로운 교사와 함께 반을 꾸려나가는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급을 운영하는 동료교사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에서 하루 일과를 정확하게 운영하길 바라는 원장선생님과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 동료 교사와 협력하기

새로운 학급에 처음 손발을 맞추는 두 명의 담임이 배정되었을 때 교사들은 호흡을 맞추며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력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거나 서로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동료교사가 비지원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F교사와 G교사는 처음 같은 반을 맡게 된 사이로 S원에 오래 근무한 F교사가 나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G교사는 F교사의 지시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학기는 투담임인 경우에 우리도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부모님도 한 공간에 계시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눈빛만 보고 바로 캐치 못하긴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애매하죠. F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정말 잘 해주시거든요(웃음). 근데 부모님 계시는데 한 아이하고만 너무 오랫동안 놀아주시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안했어요. (G교사, 심층면담, 2014.4.25)

아무래도 몸 움직이는 거는 제가 어리니까 제가 더 많이 하게 되죠. 기저귀를 갈아도 한 번 더 갈게 되구요. 배우라고 경력선생님이랑 투담임 시켜주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저도 좀 힘들어요. (G교사, 심층면담, 2014.4.25)

아이가 많이 울어서 안아주고 달래주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땐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더 안아주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기 애매모호 할 때가 있거든요. 지나서는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인이 많이 안 맞죠. 교사마다 아이적응 시키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F교사, 심층면담, 2014.4.28)

보육교사는 상호간에 화목이 유지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김혜정, 2006). 동료 교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들게 한다. 학급에서 교사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따른 지나친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최미미, 서영숙, 2013)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관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2) 원장선생님과 대화하기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평가, 교사의 보육 서비스 실천에 대한 지원과 장학은 물론이고(백혜리, 2007), 보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자이자 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확실한 결정도 있지만, 때로는 주관적인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기관을 둘러싼 부모나 지역사회 등 외부적인 관계 등에도 영향을 받아 기관운영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한현지, 서영숙, 2013) 때문에 때로는 교사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모습도 보였다.

적응이 먼전데 원장 선생님은 엄마들도 있으니까 수업에도 좀 신경써줬으면. 원장선생님도 빨리 원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보이니까 저희한테도 활동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할려고 하는데 애들이 울음을 안그치니까.

(B교사, 심층면담, 2014.4.28)

원장님을 이해하긴해요. 어쨌든 일과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부모님들께서 더 빨리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냥 노는 것만 보여줬더라면 계획상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수업을 전혀 안하는 거는 여기는 엄마 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신을 주지 않았을까. 시간 맞춰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이 시간쯤 우리애가 뭘 하고 있을 거야.’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애들이 너무 울어서 힘들어요. 애들이 동시에 울기도 하고, 그쳤다가 또 우니까 우리도 달래느라 뭘 할 수 없거든요.

(F교사, 심층면담, 2014.4.28)

한별이가 계속 울어서 놀잇감 제시, 그림책, 노래도 들려주고 다른 친구들도 보여주고 소리나는 놀잇감 눌러보고 할거 다 해도 울고, 관심을 잠깐 보이다가 또 우니까 더 이상 제시할 방법은 없고 계속 울어서 달래주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때 원장선생님이 활동을 하라고.....원장선생님도 부모님이 바깥에서 봤을 때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내는 입장이고 원장선생님은 밖에 계시니까 세세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다행히 원장님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는 해주시니까 오해가 별로 안 쌓이는데...

(A교사, 심층면담, 2014.4.28)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부모님께 공지한 일과대로 정확하게 학급이 운영되고, 영아가 최대한 원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는 원장님과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학기 초에 교사는 활동이나 수업보다는 영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 즉, 적응의 과정을 더 중요시 하는 반면, 원장선생님은 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기관을 선택한 부모들의 만족을 위해 활동과 수업을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이렇듯 영아들이 활동과 수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교사와 그 과정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원장님의 관점의 차이가 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 단독에 의한 의사결정 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교사가 참여할 때 교사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김영미, 2014; 홍혜정, 안선희, 2004) 원장선생님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일과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초기 적응기간에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관찰하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보육교사의 따라서 초기 적응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기간 동안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어린이집의 사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초기 적응 기간 동안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김윤숙, 조희숙(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연구 대상 부모들은 가정에서 양육을 하며 고수했던 좋지 않은 습관을 교사가 지속해 주길 바라거나, 양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가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 심리는 교사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고 부모와 의견 조율의 어려움을 느끼게 해 또 다른 업무 발생의 요인(서윤정, 이대균, 2011)이 되고 있었다. 부모와 교사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들은 부모에 대한 이해나 의사소통을 줄여 들게 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Pianta, 1992; Raikes, 1993), 서로 동반자적 협력관계임을 인식하고 상대의 입장과 역할을 인지하며(서윤정, 이대균, 2011)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은 부모들의 요구나 만족 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러한 대안에도 한계가 있으므로(김보들맘, 신혜영, 2000), 기관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부모와 교사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영아의 적응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기대감을 갖는 동시에 자녀의 개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보육을 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는 권혜진, 고영미(2014)의 견해와 부합된다. 영아를 맡긴 부모는 주로 기관에서 자녀의 놀이나, 생활, 식사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나타내므로(임재택, 김정신, 류경, 이숙희, 김영옥, 2003)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영아의 기질이나 선호 음식, 기본 생활 습관 등의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고 개별 영아에 대한 반별 간담회, 전화통화, 영아수첩을 통해 부모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 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어 가정과 기관의 연계성 있는 보육을 실시한다면 영아의 초기적응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협조는 영아의 순조로운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Merrill & Britt, 2008). 하지만 관찰대상 기관에서 부모들은 초기적응 프로그램 동안 해야 할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적응기간 동안 부모는 안전기지의 역할과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 점차적으로 교사에게 책임을 이양(우현경, 홍용희, 1998)해야 하지만, 부모들은 초기적응 과정을 영아와 교사간의 적응으로만 생각하고 영아가 낯선 교사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전은경, 성소영(2012)의 연구에서도 초기적응을 위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으로 부모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교육 내용(31.6%)이 1순위로 꼽힌 만큼 초기적응 기간 동안 부모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초기적응프로그램의 실시 목적,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알려줌으로써 영아의 안정적인 초기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으며(김윤숙, 조희숙, 2011) 등원 시간과 하원시간을 지키고 놀면서 배운다는 일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모교육이 선행된다면 교사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응 기간 동안 교사들은 영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데 지쳐있었고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런 교사의 정서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경우 교사의 소진(burnout)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교사-영아 간에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저해하므로(Liston, Whitcomb, & Borko, 2006)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육체적 피로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원아에 대한 서류 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유예시켜주고, 초기적응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도우미교사를 두는 방법이 있다. 또 울고 떼쓰는 영아를 돌보는 교사들이 돌봄의 가치를 알고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안지혜, 2014) 교사교육을 시행한다면 교사의 스트레스를 한결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에 도전을 받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신체적 저항으로 감정을 표현하다가 점차 서로의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며, 협상이나 중재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조혜경, 2006). 따라서 영아들의 놀이와 생활을 관찰하여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재원영아와 신입영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Bronfenbrenner(1979)에 의하면, 신입영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양육 환경의 변화를 겪는 생태학적 전이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환경이 영아에게 새로운 미시 체계의 영역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전의 양육 경험과 현재 어린이집 놀이실의 상황을 연결시켜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어린이집에 안정되게 적응한 재원영아는 놀이실 환경을 미시 체계로 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신입영아와 재원영아는 서로 다른 사회 체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우현경, 홍용희, 1998, 재인용). 연구기간동안 대체적으로 재원영아는 하루 일과에 어려움 없이 생활해내지만, 신입영아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에 놀이, 식사, 낮잠 등의 일과를 소화해 내기 힘들어 하였다. 같은 기관에서 윗연령으로 진급한 영아들도 새로운 교실 환경, 교사, 낯선 친구와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Bouville-Watson, Watson & Wilson, 2003)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반 전체의 적응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원영아와 신입영아의 개념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재원영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또래와 짝이 되게 한다거나, 부모가 시간이 될 경우에 적응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영아의 기질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재원영아의 경우에 도우미 선생님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을 해주며 새로운 놀이 규칙을 알려주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구체적인 지도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교사들은 동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상하 위계질서가 있거나 서로 간에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때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 속으로 삭히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동료 및 원장과 불편한 관계를 경험하지만(서윤정, 최서영, 이선정, 이대균, 2012) 대부분 속으로 삭히거나 회피 같은 소극적 취한다는 연구결과(나석희, 이현진, 2012; 최애경, 2005)와 일치한다. 동료와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높고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며(김동춘, 송미선, 2005), 결국 영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교육에서 조화롭고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과 긍정적인 감정처리 방법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이 제공되어야 함(서윤정 등, 2012)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 처음 기관에 적응하는 영아들을 도와야하며 영아의 부모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직접 관찰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장관찰 심층면담과 같은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한 기관을 다니고 있는 영아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보육기관의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실행하여 유의미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의 입장에서 초기 적응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성을

가지므로, 부모와 원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려움을 살펴봄으로써 양방향의 입장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문희, 장연집, 문미옥, 최석란, 조은진 (2003). **아동학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고희선, 이은하, 박희경 (2013). 어린이집 초임교사의 초기적응지도 실태 및 인식과 지원을 위한 멘토링 운영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9, 23-43.
- 구수연 (200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구수연 (2005). 적응적 측면을 고려한 1-2세 영아 프로그램 방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9(3), 191-210.
- 권미량, 최애경 (2005). 보육시설에서 부모의 갈등과 적응 유형에 대한 사례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4(1), 1-21.
- 권혜진, 고영미 (2014). 영아기 첫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 **한국보육학회지**, 14(3), 107-127.
- 김동춘, 송미선 (2005). 유치원교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261-281.
- 김보들맘, 신혜영 (2000).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53-277.
- 김소희 (2006). 영아 초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교사의 인식도 조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 (2014). 어린이집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장애학회지**, 5(2), 35-50.
- 김영옥 (2000).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진 (2003).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숙, 조희숙 (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1(6), 121-147.
- 김은경 (2010). 영아의 기질과 교사의 지도방법이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해숙 (2011).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정 (2006).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보육시설장과의 인간관계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진, 김영애 (2008). 영아 초기적응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유아교육연구**, 28(1), 5-25.
- 나석희, 이현진 (2012).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경험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해결방

- 안. **유아교육학논집**, 16(1), 69-94.
- 박미자 (2009).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혜 (2007). 유치원의 신입 원아 오리엔테이션 및 초기적응 과정의 운영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아, 엄서영 (2012).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0, 33-53.
- 박은미, 조복희 (2003). 3세 유아의 유치원 생활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7(2), 207-234.
- 백혜리 (2007). 강원도 국공립 보육시설 원장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 방안. 2007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 서소정, 하지영 (2008).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에 대한 유아 및 어머니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1), 73-86.
- 서운정, 이대균 (2011).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259-291.
- 서운정, 최서영, 이선정, 이대균 (2012). 유아교사의 직업갈등에 관한 이야기. **유아교육학논집**, 16(5), 287-313.
- 소재진 (2007).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위한 교사의 지도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진숙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 송진숙, 권희경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신유립, 윤수정 (2009).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 특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성: 유아 및 교사의 지각 비교. **유아교육연구**, 29(5), 5-19.
- 신현정 (2003).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남 (2011).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과 교사의 지도 방법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장애학회지**, 2(1), 77-96.
- 안선희 (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 안지혜 (2014).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영아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적응기간의 의미. **한국보육학회지**, 14(3), 81-105.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88.
- 우현경, 홍용희 (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27, 29-50.
- 유혜선 (2014). 영아의 기질과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 서소정 (2006).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143-155.

- 이진숙 (2004).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보육시설 적응간의 관련성. **열린유아교육 연구**, 12(2), 217-235.
- 이진희, 임진형 (2004). 영아 전담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요구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2), 193-215.
- 임명희, 강성희 (2007). 만 1세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관한 소규모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7(4), 1-32.
- 임재택, 김정신, 류경, 이숙희, 김영옥 (2003). **초기적응! 이렇게 도와주세요**. 서울:양서원.
- 장영희 (2003).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전현주, 권경숙 (2012).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 과정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533-558.
- 조혜경 (2006). 1·2세 영아의 또래 갈등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 12(1), 245-267.
- 조혜진 (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하는집**, 11(2), 237-262.
- 한현지, 서영숙 (2013). 어린이집 운영관리 과정에 나타난 원장의 의사결정.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47-169.
- 현온강, 태진 (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 홍혜정, 안선희 (2004). 유아교육기관의 조직건강 및 의사결정 참여와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255-273.
- 최애경 (2005). 보육교사의 직업적 갈등에 관한 연구. **현상학·해석학적 교육연구**, 3(1), 153-171.
- 최미미, 서영숙 (2013).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 원인 및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221-23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ville-Watson, L., Watson, M., & Wilson, L. (2003). *Infants and toddlers: Curriculum and teaching* (5th Ed.). Thomson.
- Dokett, S., & Perry, B. (2003). The transition to school: What's important. *Educational Leadership*, 60(7), 30-33.
- Entwisle, D. R., & Alexander, K. L. (1993). Entry into school: The beginning school transition and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401-423.
- Fabianm, H. (2000). Small steps to starting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8(2), 141-153.
- Fetterman, D. M. (1989). *Ethnography: Step by step*.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5), 1168-1189.
- Lally, J. R., Griffin, A., Fenichel, E., Segal, M., Szanton, E., & Weissbourd, B. (1995). *Caring for infants and toddlers in groups: Developmentally-appropriate practice*. Washington, D. C.: National Center for Clinical Infant Programs.
- Liston D., Whitcomb, J., & Borko, H. (2006). Too little too much: Teacher preparation and the first years of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7(4), 351-358.

- Merrill, S., & Britt, D. (2008). Helping babies make transitions. *Young Children*, 63(3), 60-6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Child care and children's peer interaction at 24 and 36 months; The NICHD Stud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2(5), 1478-1500.
- Peisner-Feinberg, E. S., & Burchinal, M. R. (1997). Relations between preschool children's child-care experience and concurrent development; The cost, quality and outcome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51-477.
- Pianta, R. C., & Walsh, D. (1996). *High-risk children in the schools: Creating sustaining relationships*. New York: Routledge.
- Raikes, H. (1993). Relationship duration in infant care: Time with a high-ability teacher and infant-teacher attach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3), 309-325.
- Spradley, J. P. (1988). Participant observation,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이희봉 옮김).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원판 1980). 출력일 2015년 2월 10일, <http://stat.mw.go.kr/front/statDB/statDBView.jsp?menuId=11&nPage=1&sttsDataSeq=103&subjCd=B00002&mmriDate=&schSttsNm>.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during the process of infant's early adaptation in the day care center and realize the thought and demand of teacher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desirable development in infant's early adapt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9 infants all 1 year of age, their 7 parents, and 8 teachers of S public child day care center in P city. The 8 teachers were interviewed several tim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difficultie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parents are 1) egotism focusing on only their own child, 2) distrust between the teachers and parents, 3) a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role as parents at early adaption programs, 4) and a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management of the day care center. Secon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infants, the teachers' difficulties are 1) the uncontrollable behaviors of infants, 2) the arbitration of struggle between children, 3) and the inequality between enrolled and fresh infants. Thir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teachers, the difficulties are 1) co-work with other teachers 2) and convers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day care center.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actual help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early infant adaptation process and to provide important preliminary data to plan specific management which assist with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 *Key Words* : *infant teacher, day care center, early adaptation, difficulties of teacher*

논문투고 2015. 02. 16.
수정원고접수 2015. 03. 31.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